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Scale Development of Family Strength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송혜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선강***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강사 강은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oh, Sun-Ka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Instructor Kang, Eunju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이 논문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소통·참여사업 중 가족·돌봄친화적 지역사회·직장문화(환경) 조성 분야에서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가건모)이 수행한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사업의 결과물로서, 가건모가 연구진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사업임. 논문게재에 대하여 사업위탁기관인 여성가족부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인 가건모의 동의를 받았음.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와 가건모에 있으므로, 연구에 인용 및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목적 이외에 저작권자(단체)의 허락없이 무단 이용과 배포를 금지함.

**주저자: 송혜림(hrsong@ulsan.ac.kr), <http://orcid.org/0000-0003-1826-6416>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http://orcid.org/0000-0002-3648-1921>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맞벌이가정, 건강성척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family strength scale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Based on existing theories of family strength an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we draw on 80 items to measure the strength of dual-earner families. Using a sample of 747 people, all members of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e examined the items' factor structures. Using the statistical method, we check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se items. The final scale consisted of four domains with a total of 49 items : basic foundation (basic structure, economic life, and resource management), parenting, soci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citizenship, volunteer, leisure, network), work-life balanc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sharing the family role, equal division of role). The developed scale can be used in the field, such as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or Family Center, in the context of education, counseling, or consulting for dual-earner families.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and efficiency of the scale, the adequat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fessionals who handle this scale in the field and updated data are required.

Key words: dual-earner family, scale for family strength,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family center

I. 서론

이 연구는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이고, 둘째, 맞벌이가정의 특성이다.

먼저,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고 가정의 건강성 관련 개념 그리고 지표와 척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건강성은 단지 학술적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장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된 논의의 확산 그리고 생활과학분야의 실천성 강화 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축적된 가정의 건강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척도가 개발되었고, 이는 곧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이용자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과정에 활용되며,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건강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나 여러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1인가구 건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1),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송혜림·고선강·강은주, 2022; 고선강·송혜림·강은주, 2023) 등의 사례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지표가 갖는 강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건강성 척

도는 현장에서의 맞춤형 사업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해당 가정의 강점과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진단하면 그 결과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할 때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토대 외에 이 척도를 적용하는 가정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거론한 1인가구 건강성 척도는 혼자 사는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돌봄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하였고,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는 혼자서 부모역할을 하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자녀관계,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현장에서 맞춤형 사업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맥락을 고려할 때 가족의 다양성 차원에서 계속 증가되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건강가정의 개념을 소개한 유영주(1994)는 이미 30년 전에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양한 모든 가족 형태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적인 연구(유영주, 1994: p.28)”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건강성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가족다양성의 차원에서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이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을 비롯한 여가, 자기개발 및 필수 활동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맞벌이가정에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 민주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평등한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이러한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건강성 척도를 활용하여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그리고 나아가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종합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부담으로 인한 일생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척도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조사대상자를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으로 하였다. 가정의 건강성 척도는 다양한 영역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따라서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한 결과는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정의 건강성 및 건강성 척도 관련 논의

건강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개념이지만 최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가정의 건강성’,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은 건강가족적 관점에 기초하는데, 이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질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강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행동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변화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조병희, 2015). 보건의료분야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 질병에 초점을 둔 의학적 모형에서 건강의 유지와 건강행동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가족의 문제, 부정적인 측면, 병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던 역기능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가족이 안녕(well-being)을 증진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건강 개념의 기초이다. 가정의 건강성은 “가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안녕 상태(well-being)는 물론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송혜림 외, 2022: p.57)”이다. 가정의 건강성이 가정의 특정한 상황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과 능력을 포함한

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개별가정이 지향하는 목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이라는 용어 대신 ‘건강성’은 가족이 지향하는 생활의 방향의 의미를 포함하며, 건강의 정도와 수준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가족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영주(1994)는 서구의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의 요소, 건강가정의 특성들을 검토하여 개인차원, 가족관계차원, 가족체계유지 및 향상, 가족의 가치관으로 건강가정의 특성을 묶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유영주가 제시한 건강가족의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유영주, 1994: p.33)”이라고 하였다. 유영주(1994)가 제시한 건강가족의 정의는 ‘잠정적 정의’이며, 건강가족의 특성 중에서 사회적, 심리적 특성 이외에 가정의 경제, 관리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의 건강성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연구의 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조희금 외(2018)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개념의 구성 요소를 “경제적인 토대, 가족관계, 가정역할, 사회와의 관계, 가정문화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 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합리적인 자원관리, 가족역할 공유,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건강가정의 구성요소”라 하였다(조희금 외, 2018).

건강한 가정,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를 과학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량화하여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최초의 측정도구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척도는 유영주(1994)가 제시한 건강가족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으로 가족과의 의사소통, 가족 간 몰입, 가족원의 적응력, 가족 가치관 영역을 측정하는 34개 문항의 총화척도이다. 이를 발전시켜 2004년에 발표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유영주, 2004)는 9개 영역 68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유영주(1994)는 서구 학자들의 건강가족의 개념이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가정의 경제적, 관리적 특성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 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로 가족의 건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구체화하였다.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유영주, 2004)를 보완하여 2013년에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II(KFSS-II)’(유영주 외,

2013)를 개발하였는데, 간결하면서 다양한 대상에 적용 가능한 척도로 총 22개 문항으로 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5개 영역을 포함한다.

가족서비스 실무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가정건강성 측정 도구들도 있다. 정영금, 박정윤과 송혜림(2011)이 개발한 가정 건강성 평가도구는 건강가정사업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척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검토하여 가정건강성 평가도구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평가영역으로 기초생활, 가족관계, 자원관리, 외부관계 및 균형성을 제시하였다. 기초생활 영역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3개 영역은 30문항의 총화척도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가정건강성 척도를 적용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1인 가구 생활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건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2) 등이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개발과 적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2.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관련 연구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거나, 가족건강성이 행복, 삶의 만족 등 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부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유혜승(2021)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측면, 부부관련 요인, 자녀관련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맞벌이가족 여부가 분거부부의 가족건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동거 부부의 가족건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거부부가 맞벌이가족인 외벌이가족과 비교하여 가족건강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부부가 분거하는 경우 맞벌이 자체가 가족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단일한 문항(“귀하 가정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유혜승, 2021: p.1121))과 가족건강성의 의미 설명(“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상태”(유혜승, 2021: p.1121))에 대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윤소영과 김해진(2013)은 맞벌이 기혼남성의 가정의 건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는데, 근무시간 관련 변인, 종사상지위, 일만족도 등 시장노동 관련 변인들이 맞벌이 남성의 가정건강성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생활관련 변인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정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 연구도 유혜승(2021)의 연구와 같이 1점(매우 건강하지않음)~10점(매우 건강함)을 나타내는 가정의 건강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한 문항으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맞벌이가정 부모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유지은과 김현수(2022)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외벌이 부모의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와 유영주 외(2013)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II를 기초로 가족건강성을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의 3개의 구성(construct)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맞벌이 부모의 삶의 만족에는 가족건강성 중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맞벌이가정의 가족원 간 신뢰와 유대감이 높고, 서로 존중하고, 수용적인 가족의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맞벌이 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높일수록 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박주희(2019)는 16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 부모의 일가정 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일가정 갈등의 경우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이 일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갈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가정생활의 여러 상황과 사건이 해결되지 못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일 때문에 가정생활이 방해받는 것보다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더 높은 갈등 상황으로 인식하여 맞벌이가정에서 전반적으로 직장생활과 일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이 높을수록 맞벌이가정 부모의 행복감은 감소하였는데, 가족건강성이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특히 가족건강성의 하위 요인 중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여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통해 일가정 갈등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가정의 특성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내용 구성에 참고하고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보다 포괄적이면서 긍정적인 개념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도 살펴보았다. 최환규와 김성희(2018)는 맞벌이 부부의 일·삶의 균형,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조직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삶의 균형을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으로 구체화하였고, 행복도 주관적 행복, 사회적 행복, 심리적 행복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일·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 저녁식사 횟수가 일·가정, 일·여가, 일·성장 균형 각각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스스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노력의 정도 또한 일·삶의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일·성장 균형이 잘 될수록 세 가지 행복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맞벌이 부부 각자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쾌남과 정민자(2017)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내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일가정 균형과 회복탄력성이 직장생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직무만족도, 가정생활에서 부모역할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적 영역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직무만족도와 사적영역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회복탄력성은 아내의 양육효능감과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소현(2021)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결혼생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정도,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생활 행복감은 증가하는데, 부부 의사소통 정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보다 가사노동분담 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컸다. 즉, 맞벌이가정 어머니는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잘 될 때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고, 자녀돌봄보다는 배우자와 가사노동분담이 잘 된다고 느낄 때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맞벌이가정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관련 요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 양립,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가사분담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일생활 균형은 맞벌이가정의 특성에서 시작되어 우리사회 전반의 이슈로 발전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여성(어머니), 남성(아버지), 부부의 일·가족 갈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연구한 이재림과 손서희(2013)는 일·가족 갈등을 일로 인한 가족생활의 갈등과 가족 역할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일로 인한 가족생활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당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육아휴직 제도 등 일 관련 자원은 모두 유의미하였고, 맞벌이 여성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가 일로 인한 가족 갈등에 유의미하고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윤소영과 김혜진(2013)은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 갈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당 근로시간, 일에 대한 만족도, 일가정 균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정생활 관련 요인으로 가사노동시간, 돌봄시간의 영향력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

지 않았다. 정서린과 장윤옥(2017)은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연구하였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일생활 균형 정도가 높았다. 반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일생활 균형 정도는 높은 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남편의 일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맞벌이가정의 부부가 각자 인지하는 배우자의 지지는 자신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느끼는 상대방 배우자가 지지가 상대방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향과 윤현철(2022)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각자 본인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나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균형에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에게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 각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담당하는 것이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균형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과 자녀양육, 가사분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벌이가정의 행복(하쾌남·정민자, 2017), 일가정 양립(김수향·윤현철, 2022)에 자녀 양육효능감은 주요한 영향 요인인데, 이서영(2021)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 자녀돌봄에 관한 연구들 중 조희금(2016)은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 특성이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퇴근시간의 규칙성, 휴가사용 용이성이 전반적인 자녀양육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퇴근시간 규칙성은 자녀양육 참여의 모든 하위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성이 높고 휴가사용이 용이할수록 자녀의 일상생활지도 참여가 높다고 하였다. 김유경(2022)의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연구에서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전반적인 돌봄시간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돌봄유형과 참여 양상에는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아버지는 근무일에는 필수 돌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참여율도 높은 반면 외벌이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비근무일의 맞벌이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실제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김주희와 이기영(2015)은 맞벌이 부부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배분을 분석하여 일과 생활의 모습을 유형화하였다. 부부의 일생활 유형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맞벌이 남편에서는 취업·여가병행형이 주된 유형이었고, 맞벌이 부인은 취업집중형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일생활 유형을 조합해본 결과 남편은 취업여가병행형이고, 부인은 취업집중형의 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부인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남편의 생활시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에서는 자녀돌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인이 취업노동시간 조절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의숙 외(2016)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생활시간 배분을 2014 생활시간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는데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에 유의미하게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가사노동에는 유의미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가사분담만족도는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남성이 높은 반면, 근무일의 시간활용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맞벌이가정의 생활시간배분의 성별 격차는 일상적인 여성의 긴 가사노동시간, 긴 총노동시간, 짧은 여가시간, 낮은 가사노동분담만족도로 연결되고,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남성은 짧은 가사노동시간, 짧은 총노동시간, 긴 여가시간, 높은 가사노동분담만족도로 연결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시간 영역별 시간 배분의 성별불균형은 일생활 균형, 일가정 균형의 성별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 이현아, 김선미와 이승미(2016)의 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중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는 맞벌이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으나, 주말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서지원과 이정은(2022)은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평일 여가시간과 활동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004년과 2019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두 시점의 맞벌이 부모의 여가의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맞벌이부부와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한 결과 맞벌이부부의 필수시간, 여가시간은 짧고 의무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시간 배분의 특징으로 2004년에는 종교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 시간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길었고, 2019년에는 모든 활동에서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어머니보다 길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맞벌이가정의 가정건강성 측정도구의 내용 구성과 측정 방법 구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한 맞벌이가정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요소 그리고 가정 내 돌봄의 평등한 분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 맞벌이가정의 행복이나 삶의 질,

일생활 균형 등에서 자녀돌봄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척도 개발 과정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먼저, 맞벌이가정의 실태 관련 선행연구들(김경미·계선자, 2018; 윤대혁, 2008; 강학중·유계숙, 2005)을 살펴보았다. 맞벌이가정은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무 만족도가 높으며,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일가정양립이 잘 이루어지면 개인의 행복수준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김경미·계선자, 2018).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여가활동과 관련해 여성들은 경제적 욕구보다도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자신의 취미활동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대혁, 2008). 한편, 맞벌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교육 소홀, 분담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으며, 여성은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책감, 직장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강학중·유계숙, 2005). 이와 같은 맞벌이가정의 실태 등 그 특성을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조희금 외, 2018; 유영주, 2004; 정영금 외, 2011)을 고찰하였다.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 조희금 외(2018)는 5가지 영역의 12가지의 요소¹⁾로 다루고 있으며, 유영주(2004)의 경우,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등 9가지 하위요인과 69문항으로 구성하고 있고, 정영금 외(2011)는 3가지 요인(가족관계, 자원관리, 외부관계/균형성)과 요인별 10문항씩을 구성하고 있다.

가정의 건강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다음, 본 연구는 조희금 외(2018) 연구의 1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 대해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송혜림 외(2022), 송혜림 외(2021), 정영금, 송혜림과 박정윤(2010), 조희금 외(2018), 윤소영과 박두용(2014) 연구들의 내용을 참고 및 수정하여 일가정조화

1) 가정의 건강성 관련 5가지 영역의 12가지 요소(조희금 외, 2018)

- 경제적 토대: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 가족관계: 민주·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 가정역할: 자녀성장발달 지원, 합리적 자원관리, 가족역할 공유
- 사회와의 관계: 일/가정 조화,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 가정문화: 가정문화창조유지

16문항,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 6문항, 휴식여가 공유 10문항을 개발하였고, 유희실과 양세정(2019), 송혜림 외(2021), 송혜림 외(2022) 연구들을 참고하거나 인용해 경제적 안정 6문항, 안정적 기본생활 5문항, 합리적인 자원관리 5문항, 가정문화 창조 유지 5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영금 외(2010), 송혜림 외(2021)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참고 또는 일부 인용하여 열린대화 8문항,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12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6문항, 지역사회 참여 8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설문지 초안에 대한 가정, 가족 관련 전공 교수 2인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삭제 가능한 문항, 추가해야 할 문항, 기타 의견 등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함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80개의 문항들이 구성되어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8커플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연구진이 회의를 진행하며 몇 가지의 문항의 내용들을 수정하는 등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였고, 이 과정에서 80개의 문항(경제생활 관련 6문항, 기본생활 관련 5문항, 가족관계 관련 10문항, 의사소통 관련 7문항, 휴식여가 관련 5문항, 부모역할 관련 12문항, 자원관리 관련 5문항, 일생활균형 관련 10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관련 7문항, 지역사회활동 관련 8문항,

가정문화 관련 5문항) 구성을 확정하였다. 80개의 문항들 가운데 ‘해당사항 없음’이 응답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 영역의 2문항과 휴식여가 공유 영역의 1문항, 합리적 자원관리 영역의 2문항, 일가정 조화 영역의 10문항을 제외한 총 65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하였고, 각 영역의 평균 점수가 ‘보통이다’의 3점보다 높으면 해당 영역에 대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이 높고, 3점보다 낮으면 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조사 실시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조사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남녀 800명이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747부의 자료에 대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맞벌이가정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영역과 문항들을 재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개 영역(기본도대,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의 49문항(기본생활 2문항, 경제생활 5문항, 자원관리 3문항, 나의 부모역할 6문항,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 6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7문항, 여가공유 5문항, 지역사회네트워크 4문항, 일가정조화 3문항,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8문항)이 확정되었다.

〈표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해 준비한 문항 80개

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경제적 안정(6문항)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아동수당 등)이 있다
	우리 가족은 수입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지출한다
	우리 가족은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 기본생활(5문항)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우리 가족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있다
	우리 가족의 주거공간은 청결하고 청소 상태는 만족스럽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10문항)	우리 가족은 세탁을 제때 하지 못해서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부부는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한다
	우리 부부는 가사나 자녀돌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주는 것 같다
	직장일과 가정일로 인해 나는 배우자보다 내가 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함이나 애정 표현을 전달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	

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함께 뭉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열린대화(7문항)	우리 부부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제거리에 대해 숨김 없이 이야기한다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나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불만이 없다
	나의 배우자는 우리 부부의 의사소통에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다
휴식여가 공유(5문항)	우리 부부는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 있다
	우리 가족은 여가시설 이용이나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비교적 자주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
	우리 가족은 함께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한다.
	우리 가족이 즐겁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12문항)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합리적인 자원관리(5문항)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며 준비한다
	나는 우리 집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한다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등을 생각하며 의식주 소비를 한다
	자녀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일/가정 조화(10문항)	자녀를 맡길 만한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이나 서비스가 없다
	나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다
	나의 배우자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산다
	나의 배우자는 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사는 것 같다
	나는 직장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든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직장과 관련된 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일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과 관련된 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일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하다
	나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한 것 같다
	나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지역사회 참여(8문항)	우리 부부는 지역사회시설(도서관,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한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하는 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의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 부부는 급한 상황일 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준다
	나의 배우자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부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참여한다
가정문화 창조유지(5문항)	우리 가족은 가족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일치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는다
	우리 가족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나 문화가 있다

2)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 관련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번역해 사용한 한국이동패널 연구(김지현 외, 2021)의 4문항 가운데 3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 적합하도록 문항의 문장들과 응답 보기를 수정해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인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사람인 편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결과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한 3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α 값은 .917임을 확인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우울감 조사를 위해서는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의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연구의 우울감 척도를 참고 및 수정하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입맛이 없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느꼈다.’ 등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극히 드물다

(1일 이하)’, ‘가끔(1~2일)’, ‘자주(3~4일)’, ‘거의 대부분(5~7일)’의 4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α 값은 .947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정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일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은 ‘부부 각자의 일상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부부 간 일생활 균형에서 일치가 됨, 부부 간 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부부 모두 자녀돌봄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함, 가족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 친밀감 등을 유지함, 경제 및 의식주생활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함, 미래지향적 생활설계를 하면서 가정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음, 일상적인 생활에서 합리적 자원관리가 이루어짐, 부부가 시민의식의 실천, 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음’을 균형적으로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가정은 건강한 맞벌이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매우 그렇다는 10점으로 했을 때 자신의 가정의 건강성이 몇 점 정도인지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점수 결과가 높을수록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자 학령전기/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8커플을 선정하였고,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6일까지 예비조사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11개 영역과 80개의 문항들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본조사 실시가 이뤄졌다.

본조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주)마이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실시

되었고, 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부모인 남녀 800명이며, 이 중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영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와 ‘자원관리’ 영역의 “자녀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등)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이나 서비스가 없다”의 문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7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IBM SPSS 27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과 관련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인 맞벌이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376명(50.3%), 여성 371명(49.7%)이며, 연령대는 40대(59.4%), 30대(38.7%), 50대(1.8%), 20대(0.1%)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주지역은 수도권(60.6%)과 비수도권(39.4%)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중퇴 또는 졸업)이상인 경우(9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747)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76	50.3
	여성		371	49.7
연령대	20대		1	0.1
	30대		289	38.7
	40대		444	59.4
	50대		13	1.8
거주지역	수도권		453	60.6
	비수도권		294	39.4
최종학력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이하		58	7.8
	대학교(중퇴 또는 졸업)이상		689	92.2
가구원수	3명		321	43.0
	4명		346	46.3
	5명		70	9.4
	6명		7	0.9
	7명		3	0.4
가구구성 유형	나+배우자+자녀		710	95.1
	나+배우자+자녀+나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33	4.4
	나+배우자+자녀+친인척		3	0.4
	기타		1	0.1
자녀의 수	1명		337	45.1
	2명		349	46.7
	3명		59	7.9
	4명		2	0.3
첫 자녀 연령대	초등학교 입학 전		259	34.7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만7세-9세)		250	33.5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만10-12세)		167	22.4
	중학생(만13세-15세)		57	7.6

	구분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1,2학년(만16세-17세)	9	1.2
	고등학교 3학년 이상(만18세 이상)	5	0.8
	초등학교 입학 전	372	49.8
막내 자녀 연령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만7세-9세)	375	50.2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5	22.1
본인 직업유형	사무 종사자	416	55.7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73	9.8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	2.5
	단순노무 종사자	19	2.5
	기타	54	7.3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	24.4
배우자 직업유형	사무 종사자	333	44.6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86	11.5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2	6.9
	단순노무 종사자	40	5.4
	기타	50	6.7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623	83.4
본인 종사상 지위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43	5.7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15	2.0
	자영업자	55	7.4
	고용주	11	1.5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571	76.4
배우자 종사상 지위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57	7.6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15	2.0
	자영업자	87	11.7
	고용주	17	2.3
	500만원 미만	153	20.5
월평균 소득	500-700만원 미만	327	43.8
	700-900만원 미만	175	23.4
	900만원 이상	92	12.3

맞벌이가정의 가구원수는 4명(46.3%)과 3명(43.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구구성 유형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유형(95.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수는 2명(46.7%)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명(45.1%), 3명(7.9%), 4명(0.3%) 순이었다. 첫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교 입학 전(34.7%), 초등학교 저학년(33.5%), 초등학교 고학년(22.4%), 중학생(7.6%), 고등학교 1,2학년(1.2%), 고등학교 3학년 이상(0.8%) 순으로 나타났고, 막내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경우(50.2%)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당하는 경우(49.8%)보다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맞벌이가정에 해당하며 조사에 직접 참여한 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5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

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1%),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9.8%), 기타(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각 2.5%),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0.1%) 순이었으며, 배우자 직업유형은 사무 종사자(44.6%),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1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9%), 기타(6.7%), 단순노무 종사자(5.4%),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0.5%) 순으로 배우자 직업 유형 역시 사무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본인의 경우에는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83.4%), 자영업자(7.4%),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5.7%),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2.0%), 고용주(1.5%) 순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76.4%), 자영업자(11.7%),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7.6%), 고용주(2.3%),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2.0%) 순으로 각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은 500-700만원 미만(4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0-900만원 미만(23.4%), 500만원 미만(20.5%), 900만원 이상(12.3%)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80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해 베리엑스 회전 방법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다음,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49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80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해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0개의 요인의 고유값은 1.0이상이고 전체 설명변량은 62.47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10개의 요인에 대한 각각의 고유값과 설명변량을 보면, 요인1은 고유값 12.828, 설명변량 26.179%이고, 요인2는 고유값 4.636, 설명변량 9.461%, 요인3은 고유값 2.551, 설명변량 5.206%, 요인4는 고유값 2.114, 설명변량 4.315%, 요인5는 고유값 1.885, 설명변량 3.846, 요인6은 고유값 1.596, 설명변량 3.258%, 요인7인 고유값 1.427, 설명변량 2.913%, 요인8은 고유값 1.344, 설명변량 2.744%, 요인9는 고유값 1.225, 설명변량 2.501%, 요인10은 고유값 1.006, 설명변량 2.054%로 나타났다.

요인1의 경우에는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비중(26.179%)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설명해주는 8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명을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8문항)'으로 하였으며, 요인2는 '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 요인3은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6문항)', 요인4는 '나의 부모역할(6문항)', 요인5는 '경제생활(5문항)', 요인6은 '여가공유(5문항)', 요인7은 '지역사회네트워크(4문항)', 요인8은 '일가정조화(3문항)', 요인9는 '자원관리(3문항)', 요인10은 '기본생활(2문항)'로 각각의 요인명을 정하였다. 그 다음 각 요인들을 크게 '기본토대(10문항)', '부모역할(12문항)', '사회적 관심과 참여(16문항)', '일생활균형(11문항)'의 4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으며, '기본토대(10문항)' 영역에는 요인10의 기본생활(2문항)과 요인5의 경제생활(5문항), 요인9의 자원관리(3문항)가 포함되었고, '부모역할(12문항)' 영역에는 요인3의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6문항)과 요인4의 나의 부모역할(6문항)이 포함, '사회적 관심과 참여(16문항)' 영역에는 요인2의 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와 요인6의 여가공유(5문항) 그리고 요인7의 지역사회네트워크(4문항)가 포함, '일생활균형(11문항)' 영역에는 요인8의 일가정조화(3문항)와 요인1의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8문항)이 포함돼 최종 49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강조한 바,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과 가정의 조화, 평등한 역할분담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건강성 척도 영역과 내용을 보면 일생활 균형 영역에서 일가정 조화 그리고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러한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에서는 자녀의 돌봄 이슈가 부각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영역이 포함되었고,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로 확정되었다. 부모역할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녀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자녀에 대한 격려와 지지, 자녀와의 소통 등을 포함한다.

〈표 3〉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우리 가족은 함께 못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0.727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0.727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주는 것 같다	0.711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0.680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젯거리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0.677									
우리 부부는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	0.664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0.655									
나는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함이나 애정표현을 전달한다	0.630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만큼 하고 있다	0.825									
나의 배우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	0.809									
나의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0.768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하다	0.738									
나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다	0.731									
나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한 것 같다	0.688									
우리 부부는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0.613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0.739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0.718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0.678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0.676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0.627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0.603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0.69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0.693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0.675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0.629									
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0.619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0.606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0.820									
우리 가족은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0.799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다	0.735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0.666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아동수당 등)이 있다					0.651					
우리 부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도입,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참여한다						0.620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하는 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0.581				
우리 부부는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운동이 있다						0.568				
우리 가족은 여가시설 이용이나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0.555				
우리 가족이 즐겁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0.532				
나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준다							0.763			
나의 배우자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0.739			
우리 부부는 급한 상황일 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705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452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다								0.797		
나의 배우자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0.757		
나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0.712		
나는 우리집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한다									0.775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며 준비한다									0.687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등을 생각하며 의식주 소비를 한다									0.672	
우리 가족의 주거공간은 청결하고 청소 상태는 만족스럽다									0.722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0.644	
고유값	12.828	4.636	2.551	2.114	1.885	1.596	1.427	1.344	1.225	1.006
설명변량	26.179	9.461	5.206	4.315	3.846	3.258	2.913	2.744	2.501	2.054
누적변량	26.179	35.640	40.845	45.160	49.006	52.264	55.177	57.920	60.421	62.475

- 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2) 회전방법: 베리맥스
- 3) 요인추출의 준거: 고유값(1.0)

2.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고자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항들 간에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α)을 실시하였다.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항의 크론바흐 α 는 .933으로 49개의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는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항들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는데 활용가능하도록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대해 4개의 영역 및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4개의 영역(기본토대,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의 경우, ‘기본토대’ 영역의 크론바흐 α 값은 .808, ‘부모역할’ 영역의 크론바흐 α 는 .905, ‘사회적 관심과 참여’ 영역의 크론바흐 α 는 .880, ‘일생활균형’ 영역의 크론바흐 α 는 .862로 각 영역별로 크론바흐 α 값이 0.7이상이므로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개의 요인에 대한 크론바흐 α 값을 보면, ‘기본생활’의 크론바흐 α 는 .626, ‘경제생활’의 크론바흐 α 는 .838, ‘자원관리’의 크론바흐 α 는 .702, ‘나의 부모역할’의 크론바흐 α 는 .849,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의 크론바흐 α 는 .885, ‘시민의식과 자원봉사’의 크론바흐 α 는 .880, ‘여가공유’의 크론바흐 α 는 .754, ‘지

역사회네트워크’의 크론바흐 α 는 .742, ‘일가정조화’의 크론바흐 α 는 .698,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의 크론바흐 α 는 .9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10개의 요인별로 따라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여준다.

3.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에 따라 수렴 타당도(주관적 행복감)와 판별 타당도(우울감)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도의 높은 타당도를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수렴)여야 하는 반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관계(판별)로 나타나야 한다.

한편,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관련 단일문항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문항이자 준거 문항은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귀하의 가정은 건강한 맞벌이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 매우 그렇다면 10점으로 놓았을 때, 우리 가정의 건강성은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지 선택해주시시오.”로 점수가

〈표 4〉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N=747)

영역별 (문항 수)	요인별 (문항 수)	문항	Cronbach's α
기본토대 (10)	기본생활 (2)	우리 가족의 주거공간은 청결하고 청소 상태는 만족스럽다	.626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경제생활 (5)	우리 가족은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808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아동수당 등)이 있다	
	자원관리 (3)	나는 우리집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한다	.702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며 준비한다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등을 생각하며 의식주 소비를 한다	
부모역할 (12)	나의 부모역할 (6)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933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배우자의 부모역할 (6)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849
		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배우자의 부모역할 (6)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 (6)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905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배우자의 부모역할 (6)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885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영역별 (문항 수)	요인별 (문항 수)	문항	Cronbach' s α	
사회적 관심과 참여 (16)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7)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다	.877	
		나의 배우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하다		
		나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다		
	여가 공유 (5)	나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한 것 같다		.880
		우리 부부는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우리 부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참여한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하는 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우리 부부는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우리 가족은 여가시설 이용이나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754		
	우리 가족이 즐겁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나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준다			
	나의 배우자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생활균형 (11)	일가정 조화 (3)	우리 부부는 급한 상황일 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42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8)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698
		나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우리 가족은 함께 멍처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주는 것 같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젯거리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				
.902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나는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함이나 애정표현을 전달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준거 문항과 맞벌이가정 건강성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가정 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계수는 .657로 나타나 유의미한 수준($p < .01$)을 보이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맞벌이가정 건강성과 우울감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395로 유의미한 수준($p < .01$)에서 부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수렴되며, 우울감에는 판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정 건강성과 준거 문항과의 상관계수는 .622로 유의미한 수준($p < .01$)을 보이며 준거타당도와 관련하여 맞벌이가정 건강성은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

(N=747)	
	맞벌이가정 건강성
주관적 행복감	.657**
우울감	-.395**
맞벌이가정 건강성(준거 문항)	.622**

** $p < .01$

4.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평균은 3.30(SD=0.46)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건강성 척도의 평균이 3.30임을 고려해본다면 평균 결과값이 '보통이다'의 3점보다는 아주 조금 높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개의 영역에 대한 평균(SD)를 살펴보면, ‘기본도대’의 경우 평균은 3.51(SD=0.56)이며, ‘부모역할’은 평균 3.62(SD=0.59), ‘사회적 관심과 참여’는 평균 2.74(SD=0.62), ‘일생활균형’은 평균 3.53(SD=0.59)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보통이다’의 3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3점 이상의 영역인 ‘기본도대’와 ‘부모역할’ 그리고 ‘일생활균형’은 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영역의 경우에는 건강성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 관련 기술통계 분석 (N=74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가정 건강성	1.73	4.65	3.30	0.46
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본도대	1.70	5.00	3.51	0.56
부모역할	1.75	5.00	3.62	0.59
사회적 관심과 참여	1.00	4.50	2.74	0.62
일생활균형	1.45	5.00	3.53	0.59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이 갖는 실천성과 현장 적용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 및 맞벌이가정 실태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총 건강성 척도 초안을 만들었고 예비조사 후 80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남성 그리고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747개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 영역 49개 문항을 선정한 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인 건강성 척도로 확정하였다. 4개 영역은 기본도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등 총 10개 문항),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12문항),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 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16문항), 일생활균형(일가정조화,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11문항)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다양한 영역의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맞벌이가정에 대한 맞춤형의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와 같이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데, 척도를 적용한 결과 어떤 영역 혹은 요소에서의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기

반하여 해당 가정이 갖는 강점은 계속 강화하고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장에서 건강성 지표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1인가구 이용자 대상 1인가구 건강성 척도를 측정된 결과에 기초하여 준거집단의 전체 평균, 지표 영역별 평균 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하거나, 본인의 결과 중 건강성 영역 안에서의 비교 등을 통해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한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송혜림·고선강·박정운, 2021). 물론 이처럼 전체 평균이 준거기준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자료가 전체되어야 하므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지표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 우선은 이 지표를 활용한 사례를 축적하여 전반적인 추이를 도출하고 그 안에서 평균과 준거기준 등을 선정하는 체계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의 건강성을 지원하는 현장은 교육과 상담, 가족친화문화, 자조모임, 체험활동, 돌봄과 나눔 등 여러 사업의 영역이 있으며 영역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적용 결과를 기초로 후속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맞벌이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맞벌이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건강성 척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의 독특한 지향성 그리고 다른 전달체계와의 차별성을 나타낸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수 있다(송혜림 외, 2021). 이는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제로 더욱 견고하게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이처럼 현장에서 활용성을 갖고 맞벌이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 추진 그리고 활성화 및 차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의 고찰,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전문적인 통계분석을 적용하여 확정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개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활용방법을 교육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갖는 의미,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건강성 척도의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사업의 지향성과 건강성 척도의 활용, 이용자 맞춤형의 사업을 위해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 등을 알고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워크숍이나 재교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지표이다. 그런데 가족의 일상생활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한 번 개발한 척도를 오랫동안 그대

로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변화와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의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건강성 척도를 사용할 결과를 추적하고 이를 데이터로 전환하여, 주기적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척도의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한 다음, 강점은 강화하고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척도의 활용도와 의미가 부각되는데, 이는 곧 현장에 그만큼 충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결과 사회적 관계망 차원에서 다른 가정과의 교류와 소통, 정보교환 등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한 진단에 따라 다른 가정과 함께 하는 맞벌이가정 집단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건강성 척도를 활용한 분석과 진단의 결과를 실천하기 힘들고, 이는 척도의 활용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가 맞벌이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으로 정착되고 동시에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법, 다른 한 편으로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차원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 및 집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건강성 척도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 역량교육 내용과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과 가족정책 활성화 그리고 전달체계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이 공공가정경영이나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차원에서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가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4개 영역 즉 기본토대,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을 반영하여 4개 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건강성 척도를 구성하는 영역과 요소를 직접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역제 및 축진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187-219.
2) 고선강·송혜림·강은주(2023). 한부모가족 특성에 따른 가족 건강성 차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1), 25-39. DOI : 10.22626/jkfrma.2023.27.1.003.
3) 김경미·계선자(2018).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 수준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03-119. DOI : 10.7466/JKHMA.2018.36.4.103.
4) 김수향·윤현철(2022). 맞벌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237-252. DOI : 10.22251/jlcci.2022.22.8.237.
5) 김의숙·송혜림·조희금·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6) 김유경(2022).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영향 요인 - 맞벌이 여부 및 돌봄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71-84. DOI : 10.22626/jkfrma.2022.26.2.005.
7)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8)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운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 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Ⅱ). 육아정책연구소.
9) 박주희(2019).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 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4), 23-39. DOI : 10.22626/jkfrma.2019.23.4.002.
10) 서지원·이정은(2022).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평일 여가에서 나타난 변화(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4), 39-52. DOI : 10.22626/jkfrma.2022.26.4.004.
11) 송혜림·고선강·강은주(2022).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 개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53-70. DOI : 10.22626/jkfrma.2022.26.2.004
12) 송혜림·고선강·박정윤(2021).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 1인가구 건강성 척도 활용.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주최 워크샵 자료집.
13) 송혜림·박정윤·진미정·고선강(2021). 1인가구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35-45. DOI : 10.22626/jkfrma.2021.25.1.003.
14)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15)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5-42.
16)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17)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II(KFSS-II)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 18) 유지은·김현수(202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외벌이 부모의 가족 건강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 비교. *한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6), 21-33. DOI : 10.22251/jlcci.2022.22.16.21.
- 19) 유혜승(2021). 부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건강성 영향변인 탐색. *문화와 융합*, 43(12), 1113-1135. DOI : 10.33645/cnc.2021.12.43.12.1113.
- 20) 유호실·양세정(2019). 가계재무종합지수(HFCI)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2(1), 133-159. DOI : 10.2139/ssrn.3359369.
- 21) 윤대혁(2008). 맞벌이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87-109.
- 22) 윤소영·김혜진(2013).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및 갈등 정도와 가정의 건강성 인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7(2), 19-35.
- 23) 윤소영·박두용(2014). 한국인의 여가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여가학연구*, 12(1), 149-173. DOI : 10.22879/slos.2014.12.1.149.
- 24) 이서영(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30, 1-20. DOI : 10.37918/kce.2021.9.130.1.
- 25) 이소현(2021). 부부 의사소통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어머니의 결혼생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정내 노동 분담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30(4), 29-47. DOI : 10.17643/KJCE.2021.30.4.02.
- 26) 이재림·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27)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DOI : 10.18398/kjlgas.2016.30.2.231.
- 28)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1), 59-76.
- 29) 정서린·장윤옥(2017).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지지, 직장 지지 및 일-가족 전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1(3), 97-119. DOI : 10.22626/jkfrma.2017.21.3.006.
- 30) 정영금·박정윤·송혜림(2011).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77-197.
- 31) 정영금·송혜림·박정윤(2010).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32) 조병희(2015).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서울: 집문당.
- 33)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0(4), 49-68. DOI : 10.22626/jkfrma.2016.20.4.004.
- 34) 조희금·송혜림·김경신·정민자·이승미·성미애·이현아(2018). 건강가정론. 신정: 출판사.
- 35) 최환규·김성희(2018). 개인, 가족, 조직 관련 요인이 일-삶 균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2(4), 33-60. DOI : 10.22626/jkfrma.2018.22.4.003.
- 36) 하쾌남·정민자(2017). 유아기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균형,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111-134. DOI : 10.21321/jfr.22.1.111.
- 37) Lyubomisky, H. S. & Lepper, S.(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DOI : 10.1023/A:1006824100041.

■ 투 고 일 : 2023년 06월 14일
 ■ 심 사 일 : 2023년 07월 05일
 ■ 계 재 확 정 일 : 2023년 07월 18일